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손해보업계, 러시아 보험시장 진출 본격화

-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현지 보험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지사를 설립하는 등 러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음.
 - 손해보험업계는 도쿄해상홀딩스와 미츠이스미토모해상그룹홀딩스가 2005년에 이미 주재원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손해보험회사와 합작으로 보험상품을 중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.
 - 최근에는 손해보험재팬이 알리안츠 보험그룹 계열사로 러시아의 최대 손해보험 회사 중 하나인 로스노(ROSNO)와 업무 제휴를 맺고 모스크바에 지사를 설립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상품 등의 중개 업무를 시작함.
- 일본 보험업계의 러시아 진출은 러시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, 4년 후 동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보험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임.
 -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침체 상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.
 - 또한 4년 후인 2014년 소치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프라 투자 등 보험 수요의 대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영업력을 강화를 통해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.
 -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, 보험 관련 규정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러시아 보험시장 진출에 최대 제약 요인으로 분석됨.

(FujiSankei Business I, 3/13)